

LG이노텍, 광주에 1000억 투자…AP모듈 생산라인 구축

<차량용 제어모듈>

2028년까지 3년간 투입…하남산단에 차량용 통신부품 공장 구축
자율주행·SDV 핵심 부품 양산…광주시, ‘마더 팩토리’ 입지 강화

광주지역 대표 기업인 LG이노텍이 광주사업장에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 미래 자동차의 ‘두뇌’로 불리는 차량용 제어모듈(AP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이번 투자는 2026년 새해 광주시에 전해진 첫 기업 유치 낭보로, 최근 행정통합 논의로 분주한 지역 관계에 실질적인 경제 혜력을 불어넣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LG이노텍은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광주시장), 문혁수(LG이노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용 제어모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해 광주 하남산단 내 기존 사업장에 AP모듈 양산을 위한 전용 라인을 신설한다.

당장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생산 설비 구축에 착수하며, 공장이 완공되면 LG이노텍 광주사업장의 전체 연면적은 축구장 13개 크기에 달하는 약 9만 7000㎡(2만 9300여 평)로 확장된다.

이번에 광주에서 생산하게 될 ‘차량용 AP모듈(Application Processor Module)’은 LG이노텍이 미래 먹거리로 꼽고 지난해부터 본격 육성 중

인 신사업 분야다.

이 모듈은 통신, 제어, 정보 처리 등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제어하는 부품으로, PC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당 모듈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디지털 콘솔(Digital Cockpit), 디지털 계기판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차량의 핵심 전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생산 라인 증설을 넘어, 광주가 명실상부한 LG이노텍 모빌리티 사업의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마더 팩토리는 제품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해외 생산 기지에 기술과 공정을 전파하는 핵심 거점을 뜻한다. 1985년 준공된 광주 사업장은 그동안 LG이노텍의 성장을 함께해온 본산이자, 전장부품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이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문혁수(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과 차량용 제어모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이번 투자가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가 역점 추진 중인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략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부가가치 부품인 AP모듈이 지역에서 양산되며 관련 협력 업체들의 낙수 효과는 물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시는 LG이노텍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조례에 의거해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문혁수(LG이노텍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광주 사업장은 지난 40여년간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모빌리티 사업의 심장부”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핵심 사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키우고, 지역 협력사들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광주가 미래차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광주시장)은 “행정통합 논의 등 굵직한 현안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균형은 역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LG이노텍의 이번 결단은 광주가 ‘규제 프리 실증도시’ 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1차적인 고용 창출을 넘어 전후방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홍보 걱정 끝”…광주시, 소상공인에 홍보매체 무료 개방

시운영 전광판·빛고을TV 등 38곳…도시철도 피해 상인 우선 지원

광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 매체를 무료로 빌려 준다.

광주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광주시 홍보 매체 이용 사업’에 참여할 법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홍보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공익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에 시가 관리하는 홍보 수단을 무상으로 제공, 자립 기반을 드높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방되는 홍보 매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의 대형 전광판 3곳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빛고을TV’ 27곳, 시청사 내부 승강기 모니터 8곳 등 총 38곳이다. 선정된 업체는 광주종합 버스터미널 주변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에서 자신들의 브랜드와 활동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 장기화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상가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중 법령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이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익성과 경제 활성화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

사해 총 16개 팀을 최종 선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와 단체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해당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홍보물은 30초 이내의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돼 송출된다.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담은 공익적 사연 등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 종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위·과장 광고, 지나친 영리 목적의 콘텐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상반기 모집에 이어 오는 8월경 하반기 이용자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역 증진 등 친환경농업 여건 조성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면적 관리 등 평가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은 광양시, 우수상은 신안군과 영암군이 각각 차지했다. 입장 시군에는 대상 8000만원, 최우수상 5000만원, 우수상 각 3500만원의 사업비가 주어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남군, 전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

해남군이 ‘2025년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지자체로 해남을 선정했다.

해남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4931㏊·도내 13.9%)이 전남에서 가장 많고, 과수와 채소 등 벼 이외 품목의 친환경 인증 면적도 가장 많았다. 또 올해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등 자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

광주시, 20억6000만원 투입…가로수 보강·쉼터 등

주변에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해 아이들을 미세먼지와 차량 배기ガ스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녹색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총 20억 6000만원(국비 13억 1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6년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크게 미세먼지 저감 숲과 녹색 자금 지원 숲(녹색복지숲)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시는 지난해 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효과와 접근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도심 내 신선한 공간을 순환시키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도시 바람길 숲’은 동구 필문대로, 서구 풍암동 경관녹지, 남구 효천3로 및 유안근린공원, 광산구 수완동 보행자 전용도로 등 5곳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가로수를 보강하거나 띠녹지를 조성해 대기 오염 물질을 흡착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강화한다.

여린이들이 등하굣길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자녀 안심 그린 숲’은 남구 방림초와 월산초, 광산구 선운초 등 3곳의 통학로 주변에 들어선다. 학교 담장

주변에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해 아이들을 미세먼지와 차량 배기ガ스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녹색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숲(실외 정원)’은 북구 전남대학교 유숙 공간에 조성돼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색 복지 차원에서 광산구 ‘보람의 집’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금을 활용한 ‘나눔 숲’이 조성돼 시설 이용자들의 정서 함양을 돋는다.

시는 이번 도시숲 확충이 도심 내 온실가스 흡수 원을 늘리고 폭염 시 체감 온도를 낮추는 등 기후 조절 기능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도시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기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지속적으로 늘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원하고 푸른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6일 공원·녹지 분야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녹지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